

대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철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일	1749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5월 13일 금요일	Issue No.	1749
		Date	June 27, 1969: Fri.

중동정세 긴장계속. 스에즈 방면 공중전에서 미군 2기를 이스라엘이 격추

(델라비부 6월26일밤, 에이피) 이스라엘육군 26일의 발표에의하면, 이스라엘군용기는 동일 스에즈만상공의 공중전에서 애람연합군의 제트전투기 1기를 격추하고, 단 한기에 평중란을 마쳐, 그의 파괴는 확실하다고한다. 이스라엘군측의 발표에서는 스에즈만의 북부상공을 정계 비행중의 이스라엘전투기대가, 애람연합 (에지프트) 군의 소련제 미구21형기의 일대에 상공, 공중전이 전개된것으로, 미구 1기는 애람연합 영내에 추락하는것이 보였다. 이스라엘측은 전기 두사미 격추하였다고한다. 또 24일에는, 이스라엘, 애람연합 2쌍방이, 상대방의 일기를 격추 하였다고 주장하고있었다. 한편 지상전에서는 25일 이스라엘부대의 차량이 지뢰를 밟아, 이스라엘병 6명이 부상한것을 이스라엘 육군이 발표하였다.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국방장관이 경고

(델라비부 6월26일밤, 에이피) 스에즈만상공에서서의 이스라엘, 애람연합양군기의 공중전 후에, 대한.이스라엘국방장관은 오늘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주요적은 애람연합 (에지프트) 이라고 언급하고, 애람연합측의 전우행위증가에대해서 준비하여야한다고 이스라엘국민에 경고하였다.

파리 회담의 장래. 해리맨씨 달

(뉴욕 6월26일밤, 에이피) 해리맨 전파리 회담 수석대표는 25일, 엠.비.씨 레테비슨의 회견에서 "미국이 전장터에서 승리를 얻을려고하는한, 파리 회담에서 정치적 진전을 이룰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동시에는 또 "북비에트남은 국제여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공격과 응수로 파리 확대 회담 종료

(파리 6월26일밤, 에이피) 26일 열린 파리 확대 회담 제23번 회의에서 빈남비에트남임시혁명 정부수석대표와 라우 북비에트남대표는, 닉슨대통령의 소위 "비에트남전쟁의 비미국화" 정책을 공격하였다. 양대표는, "닉슨의 비에트남정책은 기관이다. 닉슨은 사이공정권을 지지하고, 남비에트남군을 미군에 대치하려고하고있다" 라고 취지를 말하였다. 이에대해서 닷지미수석대표는 "추정권을 라도하라는 공산측의 요구는, 공동의 입장을 찾으려는 성의를 조공도 보이지안로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닷지대표는 그의 발언중에서 "70년말까지에 미지상전우부대를 비에트남으로부터 철퇴시키고싶다" 라는 닉슨대통령의 19일의 발언에대해서는 말하지안했다.



구퍼-세트 부가세 포결 - 개월 임시 연장 상원본회의에서 결정 하원의 조치대기

(워싱턴 6월25일 밤, 에이피) 30일 오후 12시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미국회에 있어서의 10% 부가세 연장안의 심의는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오늘 예정 되어 있던 토질이 연기 되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상원에서는 케네디재무장관도 참석하여 재무위원회에서의 긴급회의의 결과, 현행세율을 31일간 연장하는 안에 합의해 보고, 그의 수지반우, 본회의에서도 동안을 가결, 하원에 송부하였다. 이 임시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본안심의의 기한은 7월31일까지 연장된다. 상원에서는 임시 연장법안을 잠깐 세법안안의 추가로함으로써 송부하였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민주당 필립 버논의 원(가주)이 반대운동에도 방해, 지시의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법안의 하원송부 전에 제당 워드-트윈공화당 원내총무는 하원공화당의 원회의에서 부가세연장의 지지를 강력히 옹호하는 니슨대통령의 의향을 전하였다. 회의후 워드-트윈총무는 "공화당에서 170표까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시토질을 요구하면, 법안은 오늘중이라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말하였는데, 임시 연장안도 하원에서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하원 민주당 공화당총무는 단단 수속의 점도 심의에 들어갔다.

수도수립을 목표로 대국토의 용산권이 행동

(사이곤 6월25일 밤, 에이피) 사이곤의 미군측은, 캄보디아국내에 있는 사단 또는 그이상의 규모의 북비에트병과 남비에트병 해방전선군이 월경하여 남비에트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뒤엎었다. 미군측은, 상대측은 전에 발표된 남비에트 임시혁명정부의 수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은 요지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러한 작전의 목표로서 캄보디아에 가깝고, 사이곤으로부터는 약 80마일 떨어진 라이닝, 안록등의 도시가 울드고 있다.

푸에부르 포획은 소련이 조정 한 수작

(뉴욕 6월25일 밤, 에이피) 미정 부수집합 푸에부르가 작년 1월, 북조선연안에서 포획된 사건은, 소련의 수작에 의한 것이라고 웨모스 로마키아로부터 미국에 방명한 안.세이나시가 미다스.다이.제스트지 7월호에서 보도하였다. 안.세이나시는 작년 2월까지 웨모스 로마키아군의 소장으로서 국방성의 당조지에 관여한 사람, 동시에는 이른골속에서 "푸에부르사건이 일어난 8개월전에 주락에서 열린 주석회의에서 주체지 소련국방상이, 미군함 포획의 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북조선은 자라는 한수업기때문에 소련이 힘을 빌려주고 손잡이가 될 것이라고 동국방상이 말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관부선박사 발족 시모노세끼와 부산간

(시모노세끼 6월25일 밤, 동동) 시모노세끼와 한국부산간의 관부선박을 운영하는 시모노세끼측 "관부선박회사"의 창립총회가 21일 오전 11시부터 동시의 야마구치 은행본점에서 열렸다. 발기인대표인 이가와시장을 워시하여 발기인 주주등 약백명이 참석, 이가와시장이 창립까지의 경과보고, 정관 일부를 명명하여 승인 취체역 7명과 감사역 1명을 선임하였다. 관부선박은 지난해 9월동경에서 한일 각국회의가 열렸을 때 제안되어, 그후 양국정부의 협력으로 시모노세끼와 부산 양시가 계획을 진행하여 왔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암모를 경영하는 회사는 한설의 민간자본에 의한 합동회사로 양시에 자본금 30만불의 회사를 설립, 시모노세끼시에서 부산시에서도 가까이 "관부선박회사"의 창립총회를 연다. 창립본은 3천불의 고수선박으로, 2척을 고대로 운양, 양시를 탐지 7시간으로 뱃는다. 우선 1척을 시모노세끼시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내년 6월까지에는 취입시업예정. 자동차의 상도 운전이 될수있도록 한국측이 "도도코용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지금의 운전면허증으로 도항수속이 된다. 또 회장에는 마스무라시, 사장에 이리다나시가 각각 결정되었다.

비52기 일본주류 위법아니다

(동경 6월24일 밤, 동동) 다카쓰지내각법제국장관은 24일의 중원내각위원회에서 비52의 주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52는 자위대 위해서 필요한 한계를 넘기 때문에, 자위대는 도저히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의 장비중에 비52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것을 (비52주류) 인정하는가 안하는가는 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임의로 결정할 것으로, 헌법의 제약과도 별도이다. 수가 많더라도 입양공단이 된다면 사권협의의 대상이 된다.

한국 헌법개정 반대운동 대학에 파급

(서울 6월25일 밤, 에이피) 서울, 조해, 연세등 서울시내의 국립 사립대학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헌법개정반대의 움직임은 23일 지방에도 파급하여, 대구시의 국립 경북대학에서 2백여명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이날에도 국립서울대학 문리학부의 학생 백여명이 구내에 있는 학생혁명기념탑앞에서 반대집회를 하였다.

미육군 병력을 - 만드천명 감원

(워싱턴 6월25일 밤, 에이피) 미국방총성은 25일, 8월의 징병인원을 2만9천5백명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육군의 병력을 1만3천명 감원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감원은 일부 니슨대통령의 비에트남철병제위과 관련하고 있다. 금년각월의 징병인원의 최고는 2월의 3만3천7백명, 최저는 7월의 2만2천3백명이었다. 8월의 징병인원은 전월 육군에 편입된다. 육군의 감원 1만3천명중 6천명은 비에트남철병 제1진중의 육군 1만5천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의 8천명이 제대될때, 보충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단 5천명에 대해서는 "육군의 아공병력에서 지원병력의 수요가 감소될 때" 보충은 없을 것이다. 이감원의 결과 미육군의 총병력은 백50만을 조금 넘는 정도로 된다. 국방총성은 비에트남 주류의 미병 인사함에 대해서 대략 년간예산 약1만불이 불기 때문에, 감원의 예에서 육군관계예산 약1억3천만불이 절약된다고 보고 있다.

혁명정부와의 합동위를 추대통령 제안

(사이곤 6월21일 밤, 에이피) 소식통에 의하면 추남비에트남대통령은 금부, 각도에 대해서, 비에트남의 권부정권의 선거에 대비해서 사이곤정 부파 임시혁명정부 합동위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동측은 "추대통령은 비에트남의 선거의 수속고섭에 있어서, 정부내의 합의를 보겠다는 의향이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합동위원회에서의 사이곤정부대표는 "민대인"이라 불리는 민중에 입기가 있는 즈은.반.민장군이 될 것이라고 권해지고 있다. 민장군은 63년 그.진. 쟁정권을 마도한 혁명의 지도자로, 그후 국외에 망명하고 있었는 데, 작년에 귀국하였다.

(제4편에 계속)



